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와 함께한 사회·정서 발달 지원 활동 사례 공모전」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가 우리 집에서 자라는 방법

저는 어릴 때부터 봉사를 ‘밥 먹듯’하며 자랐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음성 꽃동네, 동네 보육원, 다운증후군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찾았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시기엔 일주일에 하루, 방학이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갔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름이 틀림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태도라는 것. 이 교육은 아버지에게서 저에게로, 그리고 이제는 제 아이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며 가장 의식적으로 한 선택도 그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조기 한글, 조기 영어에 열광할 때, 저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게 정의”라는 기준을 아이 마음에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부터 우리 집에는 ‘인성 루틴’이 생겼습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집에서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활동들입니다.

첫째는 ‘감정 이름 붙이기’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착해야 한다”를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네 마음이 지금 어떨지부터 알아야 남의 마음도 볼 수 있어”라고 반복했습니다. 아이가 두 돌, 세 돌 무렵부터 저는 아이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속상했구나.” “지금은 무서웠구나.” 그리고 네 살이 되면서는 아이가 스스로 말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 집에는 ‘마음 신호등’도 있었습니다. 초록(괜찮음)·노랑(불편함)·빨강(도움 필요)으로 표시하고, 빨강이면 혼내지 않고 쉬는 방법을 같이 찾았습니다. 식탁에서는 늘 세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①나는 지금 (감정)이야. ②왜냐하면 (상황) 때문이야. ③그래서 나는 (도움/바람)이 필요해. 아이가 장난감을 빼앗기고 울던 날, “화가 나. 내 장난감이었는데. 돌려받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문장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울음 대신 말로 설명하는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상대를 때리는 대신 대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름 그림책’과 역할 바꾸기 놀이였습니다. 영유아기 아이는 “왜 저 친구는 말을 못 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답을 서둘러 주지 않고, 역할을 바꿔보게 했습니다. 인형을 두 개 세워놓고 한 번은 “내가 나”, 한 번은 “내가 그 친구”가 되어 말해보는 놀이입니다. “그 친구가 너라면 지금 듣고 싶은 말이 뭐야?” 아이는 처음엔 “몰라”라고 했지만, 반복하다 보니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라는 말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우리 집의 약속처럼 붙여두었습니다. “우리 집은 느린 사람 편이다.”

셋째는 ‘나눔 상자’였습니다. 집 한쪽에 작은 상자를 두고, 아이가 스스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안 쓰는 장난감 한 개, 과자 한 봉지, 작은 편지 한 장. “이걸 받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를 함께 상상하고, 아이가 직접 문장을 적게 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를 떠올리는 힘’이었습니다. 가끔은 간단한 봉사처에 함께 들러 인사를 하고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낯선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배운 건 단순했습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 곁에 설 수 있다.”

그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1형당뇨병이 발병했습니다. 1형당뇨병은 자가면

역 반응으로 책장의 인슐린 분비세포가 손상되어, 결국 평생 외부 인슐린에 의존해야 하는 (인슐린 의존성) 질환입니다. 진단 이후 우리 집의 하루는 혈당과 인슐린, 식사와 알람으로 촘촘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병 자체보다 '시선'이었습니다. 아이는 보건실을 드나들었고, 센서와 주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설명해야 하는 순간마다 작아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아이가 덜 드러나도 되는 곳, 어른의 손이 더 가까운 곳으로요.

전학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학년 2학기, 반에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진 남자아이가 전학을 왔습니다. 아이들은 그 친구를 피했고, 선생님이 보지 않을 때는 밀치거나 때리기도 했습니다. '느리다'는 말이 무시와 폭력의 핑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다시 우리 루틴을 꺼냈습니다. '감정 세 문장'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역할 바꾸기 놀이로 "그 친구가 나라면"을 묻고, 작은 보호 미션을 정했습니다. **"오늘 한 번은, 누군가를 덜 외롭게 해주자."** 아이에게 특별한 영웅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집의 약속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겨울방학 직전, 담임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반 아이들이 그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히는데, 아버님 아이만 그 친구에게 말을 걸고 챙깁니다." 선생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연태는 또래보다 힘도 약하고 체육도 잘 못하는데도,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남자대 남자로 너무 멋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꾸준히 가르치셨는지 부럽고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는 원래 겁이 많고 내성적인 편이었는데, 더 약한 아이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그 친구랑 무슨 얘기했어?"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름 물어봤어. 점심 뭐 좋아하는지도. 애들이 웃길래 '하지 마'라고 했어." "무섭지 않았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조금. 근데 아빠가 약한 사람 지켜줘야 한다고 했잖아."**

저는 그 한마디에서 영유아기에 했던 작은 루틴들의 의미를 다시 보았습니다. 감정을 말로 붙이는 연습, 다름을 상상으로 건너가 보는 놀이, 누군가를 떠올리는 나눔 상자. 그것들은 '착한 아이 만들기'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이가 당뇨로 **'다름'의 시선**을 겪고 나서도, 그 경험이 상처로만 남지 않고 타인의 다름을 지키는 힘으로 변한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투병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공부를 앞당기는 것보다 먼저, 아이 마음의 언어를 키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아이가 세상에서 누군가의 편이 되는 능력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한 문장이, 우리 집에서는 오늘도 작은 행동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1형당뇨를 가진 첫째 아들, 둘째 딸, 2021년생 막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막내는 아직 말이 서툴지만, 제 가르침과 첫째 형의 행동을 보며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우리 집의 언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곁에 서는 연습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